

# “우리절 소식 우리가 전해요”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브렌다 쇼샤나 박사(1)

## 선 심리치료, 대중화에 앞장

“선(禪)은 어렵지 않다. 앞으로 부딪히게 될 모든 복잡한 일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벼랑 끝에서도 꿈쩍하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갖게 한다. 그러면 마치 긴 꿈을 꾸다 깨어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만날 수 있고, 사는 것이 행복임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Zen Miracle' 중에서)

미국의 유명 심리 치료사인 브렌다 쇼샤나(Brenda Shoshanna) 박사는 선(禪)과 종교, 철학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선 수행에서 찾고 있다. 그는 따뜻하고 인성 많은 스타일로써 해결하기 어려운 힘든 일도 쉬운 말로 설명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 평평을 듣고 있다.

특히 그가 안내하는 선(禪)의 세계는 친구를 적으로, 즐거움을 고통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바꾸는 인공의 장애물을 이해하고 없애는 것에



▷브렌다 쇼샤나 박사

르침을 받으며, 어릴 때의 하루하루 기억과 꿈꿨던 완벽한 삶이 새롭게 시작됐다. 좌선은 도파나 새로운 종교의 수용이 아닌 거듭되는 수행의 연속이었다. 좌선을 통해 그는 점점 생생하게 깊어지고 삶의 전체를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 삶의 모든 순간 아우르는 참수행 추구

### 좌선 통해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 보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제를 푸는 일상적인 방법과 선의 방법을 대비하여 보여 주면서 가족, 직장, 인간관계,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접목시킨다. 그래서 그는 “참다운 수행은 삶의 모든 순간을 아우른다”고 말한다.

“인간의 정(靜)과 동(動)의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도 버리거나 취할 수 없는 숙명을 안고 산다. 새가 왼쪽 날개만으로 날 수 없음과 같다. 일어나고 자고 대화하고 사랑하는 순간순간이 실제 수행과 다르지 않다. 맑은 마음과 몸은 세상에 홀로 없는 자신이다.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 ('Zen Miracle' 중에서)

브렌다 쇼샤나는 26년 전 세계적인 선학의 권위자인 스즈키 다이세츠 박사의 책을 통해 선과 인연을 맺었다. 브루클린의 보로 파크에서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공립학교에 다니던 15세 경 선에 대한 갈망과, 혼돈과 투

김재경 기자

## 바라밀현장

### 인터넷 조계사 보도국 신도기자들

사에서 근무하다 조계사 홈페이지와 보도국 기자 소식을 접하게 된 회원 등 알음알음으로 모인 회원들은 현재 30여명에 이른다.

이처럼 모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다양 각색이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의 끈이 있다. 그것은 바로 프로의식. 글에 대한 욕심만큼이나 책임감 역시 강한 자신에게 맡겨진 취재만큼은 빈틈없이 처리한다. 온·오프 모임을 백배 활용해서 취재일정과 보도국 향후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을 벌이는 가하면, 다른 회원들 기사의 오답자까지 수정·확인해가며 완벽한 기사쓰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들의 기사들을 수합하는 조계사 홈페이지 기획팀까지 아마추어답지 않은 열정과 글쓰기 능력을 칭찬할 정도다.

최근에는 중·고등학교 명예기자단까지 확보한 이들은 취재외에도 크스님 법문을 녹취·정리하기도 하고, 다양한 컨텐츠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취재의 범위와 영역을 확장시켜 불교계 전반 행사까지 다루는 것을 비롯, 굵직굵직한 사건은 기획 기사로 처리할 만큼 자체 역량을 강화시키기도 했다. 이미 신도의 귀감이 돼버린 그들의 뜻을 이은 제 2, 제 3의 신도기자 출현이 멀지 않은 듯하다. (02)732-2115

강신재 기자 thatswhy@buddhapia.com



### 획일적 보도 탈피 직접 현장취재

### 건당 클릭수 2천여회 이룰정도

### 30여회원 프로의식 공통의 끈

“취재일정 확인하고 추가할 사항 없나 살펴봅시다. 취재하자마자 기사 바로 올리는 것 잊지 마시고요.”

신문사 편집국 회의에서나 나올 법한 말들이 10월 19일 서울 길상사 한 컷 찰집에서 흘러나온다. 친정 조계사를 멀리 두고 모처럼 나들이 법회에 나선 인터넷 조계사 보도국(팀장 배만경) 신도기자들, 법회가 끝나자 어김없이 한데 모여 취재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난 취재 후기서부터 예정에 없던 취재 계획에 이르기까지 앞다투어 벌이는 한 판 회의에 정신이 없을 정도다.

“획일적인 언론 보도에 의지하기 보다는 우리절의 다양한 움직임을 신도의 목소리로 전하고 싶습니다.”

모임의 장인 배만경(40)씨 말대로 신도기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조계사 소식을 직접 전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조계사 뉴스는 모두 이들의 눈과 귀를 거쳐 생산된 것. 신도기자들은 취재는 물론 기사작성

과 교정교열에 이르기까지 '진짜 기자'의 일을 거뜬히 해낸다. 법회나 행사 현장의 생생한 모습은 물론이고, 신도들의 숨겨진 실행 현장 발굴까지 그들의 취재 영역과 활동은 조계사 출입기자 못지않다.

“개성을 한껏 살린 신도기자들의 기사는 한 건당 클릭수가 2천여 번에 이를 정도입니다. 인터넷 조계사 활성화의 일등공신이지요.”

조계사 홈페이지 웹마스터 남원근(35)씨는 봉축행사 준비로 바쁜 지난 4월 홈페이지 기획팀에 신도기자 필요성을 건의하다. 조계사보를 꾸리던 몇몇의 도전으로 시

작된 일은 양질의 인적자원이 모여들면서 점차 활기를 띄게 됐다.

“토요일마다 조계사 내 외국인 안내소에서 안내 봉사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보도국 얘기를 듣게 됐어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이것 역시 의미있는 봉사라 생각하고 참여하게 됐지요. 평소 좋아하던 글로 불교를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쁘기도 했지요.”

회원들이 모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변지희(31)씨와 별반 다르지 않다. 조계사 경전 수업을 들으러 왔다가 얘기를 전해들은 회원, 법동모임에서 경내 노력봉사를 벌이던 인연을 맺게 된 회원, 홈페이지 관련 회

10년 동안 꾸준한 소리없는 자원봉사를 실천해 온 불자들이 있다.

경북 안동시의 안동불교신행회 회원들이 바로 그 주인공. 이들은 2주에 한번씩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장애우 목욕·주방·청소 봉사 등의 각종 노력봉사를 도맡고 있다. 이곳 관장인 정량사 주지 지현스

### 창단후 10여년 간 노력봉사

### 바자회등 나눔행사 일상화

님을 지도법사로 모신 것이 인연이 돼, 2001년 개관 때부터 복지관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관내 봉사의 핵심도우미로 자리잡은 것이 이들이다.

또한 신행회가 창단된 10여년 전부터 꾸준한 이어온 안동종합사회복지관 봉사도 신행회 주된 활동 중 하나다. 안동지역 소년소

녀 가장들과 독거노인들을 격주로 방문, 가사일을 함께하며 정을 키웠다. 생필품이나 간식지원은 물론이고 필요에 따라 TV를 설치하는 등 그들의 나눔보시에는 끈끈한 정성이 배어있다.

또한 안동불교신행회는 3년전부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에 차바자회를 벌여 그 수익금으로 성금을 마련하기도 했고, 동짓날이면 무료로 팔죽을 쑤어주는 등 다양한 나눔행사로 일상화하고 있다. 그러한 활동 덕분에 가톨릭계 안동종합사회복지관이 선정하는 우수봉사단체에 뽑히기도 했다.

신오남(43) 안동불교신행회 회장은 “하심을 제화하기 위해 시작한 봉사가 해마다 이어지면서 삶의 지점이 돼 버렸다”며 “불우 이웃 봉사를 통해 인생을 배울 수 있어 나눔이 새롭다”고 말했다. (011)9562-8352

강신재 기자

## 안동불교신행회

### “봉사하면 나날이 새롭습니다”



▷안동불교신행회 회원들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이등목욕 봉사를 벌이고 있다.

### 제36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

**행사개요**

1. 일 시 : 불기2547년 11월 15일(토) 17:00 ~ 16일(일) 15:00
2. 장 소 : 동양호텔(경북 경주소재)
3. 연수참가비

구분	대상 인원	미리접수	당일접수	재수도 응징도 균등방	해외 거주자
어린이와 함께하는 인형극	50명	60,000원	70,000원	50,000원	
어린이와 함께하는 애니메이션 제작	50명	60,000원	70,000원	50,000원	
신문활용을 통한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 NIE	50명	50,000원	60,000원	40,000원	무료
어린이법회에 활용할 상담	20명	60,000원	70,000원	50,000원	
불교학교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130명	50,000원	60,000원	40,000원	

(※재료비 포함가격 ※파워포인트 대상 인원만 받습니다.)

**4. 지급품 :** 연수자료집, 기념품(점심식 알뜰마음)

**5. 개인준비물 :** 필기구, 삼보일배 시 입을 옷 등

**6. 접수 방법**

가. 접수 (1) 온라인 ① www.dongja.org에서 회원인 경우 로그인 한 후 연수회 참가 신청 클릭하여 접수 ② www.dongja.org에서 비회원인 경우 회원 가입 → 로그인 → 연수회 참가 신청 (2) FAX ① www.dongja.org에서 연수회 참가 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② 신청서 작성 후 FAX로 접수 (051)864-4665 (3) 연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서를 미리 받고자 합니다. ▷본회의 사무국 (051)864-4570

나. 참가비 납부 (1) 접수 후 입금 (2) 실명인 관계로 송금 후 연락바랍니다. (3) 송금계좌 : 우체국 601310-01-002215 [예금주 : 대불어] ※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 접수마감 - 신청서 및 참가비 마감 : 11월 10일 까지 (기한내 참가비 미납 시 당일 접수 참가비를 내야 함.)

**강의내용**

구분	교육 내용
교재에 부처님 마음을 담자	- 교재와 교구 제작시 불교의 교리와 부처님 말씀을 담아서 제작하자.
어린이와 함께하는 인형극	- 구연동화의 이론 및 실제 - 인형제작 - 인형극 조별발표
어린이와 함께하는 애니메이션 제작	- 애니메이션 이론 - 애니메이션 제작 - 애니메이션 조별발표
신문활용을 통한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 NIE	- 신문 활용 교육을 통한 어린이의 창의성 발달교육 - 어린이법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NIE
어린이법회에 활용할 상담	- 불교어린이지도자로서의 정체성과 지향점에 관한 논의 및 강의 목표 설정 -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들을 것인가? - 아동의 심리적 문제 유형
불교학교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 부처님과 함께하는 법당놀이 - 흥겨움이 가득한 찬불가 게임 - 서로를 이어주는 우리는 하나게임
찬불가와 율동	- 겨울불교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찬불가와 율동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www.dongja.org TEL. (051)864-4569, 4570 FAX. (051)864-4665

### 약사여래불 점안 부처님진신사리친견및보살계대법회





부처님진신사리      중식사리      정식사리

일 시 2003년 11월 1일 (음력 10월 8일 토요일)

◎약사여래불 점안식 오전 9시

**초청법사** 헤인 큰스님  
바라춤.나비춤 어산스님 3명

◎보살계 수계식 오후 2시

**초청법사** 미얀나 우위자님다 장로 큰스님  
신암 도원 큰스님  
해각 지성 큰스님  
문수회 스님의 다수

※ 오전 8시 조계사 앞 버스출발 문의 011-237-5227  
※ 보살계 수계접수 연화세계 중무소 031) 585-5108

**대한불교 조계종 축령산 연화세계 주지 정명 합장**  
경기도 가평군 상면 행현2리 388번지 TEL 031)585-5108